

하루를 시작하며



정한석 전 초등학교 교장·수필가

인간 삶의 공동체는 국제연합, 다문화 사회 등 인류 공동체로 급변하고 있다. 국제 연합의 구성 단위가 국가인데 비하여 다문화 사회의 구성 단위는 다문화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다문화 가정은 증가 추세다. 통계청 자료에 대한 보도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다문화 가정은 31만 가구를 헤아리며 제주지역도 이미 4000가구가 넘는다. 이에 즈음해서 다문화 사회 본질을 개관하여 보다 평화로운(행복한·잘 사는) 다문화 사회를 검토해봄으로써 인류 공동

인류 공동체 발전과 다문화 사회

체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오경석 교수(한양대 다문화연구소장, 2008)는 다문화에 대해서 “한국은 전세계 184개국 가운데 아이슬랜드와 함께 유일하게 단일 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 ‘한 핏줄-한 민족-한 문화’ 신화를 대표하는 나라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몇 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다문화란 어렵고 논쟁적인 개념이지만, 다문화중심주의를 버릴 수 있는 문화다원주의를 뜻한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다문화 사회 개념을 검색해 보면 민족, 인종, 언어, 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외국인) 거주자가 전체 인구의 5%가 넘고,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여 공존하는 사회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다문화 사회의 본질은 자문화중심주의를 버릴 수 있

는 문화다원주의로서 민족, 인종, 국적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사회라 개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앞의 오늘날 다문화 가정의 증가 추세 현상 등은 구성원들 간 차별과 대립 갈등의 요인을, 그리고 이혼율과 재혼율을 높여 네트워크 가족, 복수(複數) 핵가족과 함께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 외국인 범죄 등의 증가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검토해 볼 때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간애와 인간의 이성적 사유(思惟)능력 발휘 및 사전대비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인류 공동체는 인간애를 바탕으로 인종·민족·국적의 차별 없이 인류 전체를 널리 사랑하여 세계 평화를 이루자는 인도주의 정신과 맥이 같기 때문이다.

14-16세기 인간중심주의 운동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17-18세기 봉건제가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이상중심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계몽주의(啓蒙主義) 운동 등은 이에 대한 근원적 배경이라 하겠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다 평화로운(행복한) 다문화 사회는 인간애와 이성적 사유 능력 발휘로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고 한 덩어리로 조화할 수 있는 요소 모색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 요소는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에게 보편 타당한 규범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규범이 보다 나은(좋은·공정한)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결함은 찾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야 하고, 또 이와 병행해서 공동체 구성원들 저마다 평소 자립·공동체 전체 개관·상호 간 역사사지·상호 존중·이해와 포용 등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 태도와 노력이 중요시된다.

사설

4·3유적 제대로 된 조사·정비계획 수립해야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제주 4·3과 관련한 역사현장은 그동안 무관심속에 방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개발붐에 편승해서 4·3성으로 쌓은 돌담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등 점차 훼손이 가속화되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 해 수악주둔소가 4·3유적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서 관심이 증대되고, 역사교훈의 장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4·3관련 역사현장 등 유적지는 600여 곳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정비가 진행된 곳은 19곳에 불과하며, 표석도 없어 버린 마을을 중심으로 일부만 설치돼 있습니다. 4·3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주도가 올해말까지 4·3유적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키로 한 만큼 제대로 된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주요 유적지

30곳을 선정하는 등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4·3유적은 2002년과 2003년 조사 이후 사실상 실태조사 파악 없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등 점차 훼손이 가속화되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 해 수악주둔소가 4·3유적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서 관심이 증대되고, 역사교훈의 장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4·3관련 역사현장 등 유적지는 600여 곳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정비가 진행된 곳은 19곳에 불과하며, 표석도 없어 버린 마을을 중심으로 일부만 설치돼 있습니다. 4·3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주도가 올해말까지 4·3유적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키로 한 만큼 제대로 된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주요 유적지

열린마당

송산동, 이번엔 칠십리축제당(堂)



오지영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특별히 움직이지 않아도 굵은 땀방울이 쏟아지는 올해 여름, 남들보다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일이 생겼다. 바로 오는 9월 27일부터 3일 간 열리는 '제25회 칠십리축제'다. 2017년 신규 임용을 받아 칠십리축제 때 송산동 페어리드 맨 앞에서 피켓을 들고 발을 내디뎠을 때 “송산동이 최고다!” 하고 야깁없는 격려와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공무원으로 처음 맡은 역할을 잘 마칠 수 있었다. 2018년 칠십리 축제에서는 그물망에 달아놓은 사랑을 서귀포시민들에게 나눠 드리고, 자리돔 시식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공직사회에 입문하기 전에도 친구들과 거리 페어리드를 구경하고, 함께 즐겼던 나에게 2019년 칠십리 축제는 특별하다. 올해는 칠십리 축제 페어리드의 구성원이 아닌 페어리드의 담당자로서 축제에 참여한다. 특히 이번 송산동 페어리드에서 주목할 점은 작년까지 해왔던 테우를 활용한 페어리드는 잠시 쉬어가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송산동의 ‘당(堂)문화’를 주제로 하여 서귀동 할당당과 보목동 조조기당 관련 조형물을 통해 어촌마을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표현하고, 무사안녕을 기리는 행렬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구리공원 행사장에서는 송산동만의 특색 있는 제과제빵·바리스타 부스를 운영하여 축제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송산동 페어리드에 참여하시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다. 서귀포시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 유일하게 17개 읍·면·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준비하는 칠십리 축제가 서귀포시민, 관광객 등 축제를 찾는 모든 이에게 좋은 추억으로 가득 남을 수 있도록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짐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봉개동 쓰레기 사태, 행정시장 한계 노출

“자치권 없는 허수아비 신세”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반입 거부 사태로 행정시장의 역할 및 권한의 한계가 노출.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이용기간 수회 연장에 불만을 갖고 있는 봉개동쓰레기매립장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고회법 제주시장을 배제하고 원희룡 지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시도.

한 공무원은 “자치권이 있던 시절에는 제주시장이 민원을 직접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도지사만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행정시에 자치권이 없는 한 행정시장은 허수아비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푸념.

비리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네 번째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지급. 감사위는 “비록 제보자가 위법 사항에 가담했지만 뒤늦게나마 감

인시설에 속은 것을 자각하고 공익제보 한 점과 이로 인해 부정사용 보조금에 대해 환수 및 개선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익신고로 환수된 금액은 총 4건에 1억6679만원, 지급된 보상금은 1411만원으로 집계.

카카오 블라인드 채용 주목

○...카카오가 9월 4일까지 2020 신입 개발자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며 관심이 집중.

공채 시행업체는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브레인, 카카오커머스, 카카오페이, 카카오CIC 등 7곳.

카카오 관계자는 “지원서에 학력, 나이, 성별 등의 정보를 받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2017년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우수 개발자 선발을 위해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스펙이 아닌 개발 역량과 업무 적합성을 집중 고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제주-일본 노선 중단 재고하라

대한항공이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마지막 호소마저 저버렸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본과의 무역 전쟁 등으로 탑승객이 줄어들자 오는 11월부터 제주와 도쿄, 제주와 오사카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광협회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빌미로 제주와의 직항노선을 감축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지만 마이동풍이 돼버렸습니다.

주정체를 지탱하는 버팀목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일본노선을 중단할 경우 제주관광은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역에서 먹는생물을 생산하며 2개의 호텔, 제주민속촌, 그리고 제주목장과 비행훈련원을 운영하는 한진그룹은 스스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어려울 때 같이 난관을 극복해주는게 기업의 또 하나의 사회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진그룹은 현재 한국공항공을 통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먹는생물 증산허가와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민들에게 먹는생물 생산량 증산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지금은 지역 사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섬 지역인 제주에서 직항노선은 제주의 경쟁력이자 인프라입니다. 대한항공의 제주-일본 노선 운항 중단 재고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부고
임철주·철용(제우건축) 어머니 동래정씨 해정(향년 91세)께서 서귀 2019년 8월 19일 14시 04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8월 21일(수)
▶발인일시: 2019년 8월 22일(목) 오전 11시
▶발인장소: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마을회관(윤성이네식당)
▶장 자: 보성리 선영
아들 임철주, 며느리 정경숙, 철용, 고정숙, 철민, 문미란, 딸 임순희, 사위 조동기, 순덕, 김익수, 손자 임근목, 외손자 조현우, 근배 김민석, 현도, 외손녀 조현빈, 현수, 김현지, 손녀 임주은, 주희, 은재, 증손자 임지우
* 연락처: 임철주 010-6344-4891, 임철용 010-3691-1219

박물관 휴관안내
제주평화박물관 사정상 2019년 9월 1일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휴관함을 알립니다.
(주) 제주평화박물관 대표이사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황금향 판매
당도 탁월, 산도 적음, 껍질 잘 벗겨짐
생산지 직거래, 택배비 포함
5k(25개~35개) 4만원, 10k(50개~70개) 7만원
문의 오문식 010-3696-3933 (도매도 가능합니다.)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독성을 미국식품의약국 FDA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한기림팍약백도라지연구소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하귀농협장례식장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405 (노형에서 10분 거리)
독립적인 5개의 고층객 분향실, 독립적인 상주휴게실 및 편의시설, 하귀농협직영 합리적인 장례비용, 동시주차 500여대의 넓은 주차장, 타 장례식장 대비 저렴한 식비 (6찬제공),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직영점 운영, 노형에서 10분거리 (대중교통이용가능)
24시간 무/료/상/담/실/시 24시간/대기
T. 798-8800